

“군 공항 인근 고교생 스트레스 시달린다”

민형배 광산구청장 소음피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비행 훈련때 생리적 변화까지 ... 이전 시급

광주 광산구가 군 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소음피해 특별법 제정과 군 공항 이전을 촉구했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 21일 광산구청에서 현안 간담회를 열고 ‘군 공항 항공기 소음피해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원광대학교광주한방병원 연구진은 공항과 가까운 광산구 송정동 모 고등학교 1~2학년 재학생 160명과, 공항과는 멀리 떨어진 남구 방림동 모 고교 2학년 학생 150명을 상대로 올해 1월 5일부터 7월 28일까지 타액 코티솔 변화량을 비교 조사해

생리적 스트레스와 심리건강을 측정했다. 조사에 따르면 공항 인근 고교생들은 군 비행 훈련 기간 중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불리는 코티솔 분비량 증가폭이 다른 지역 학생들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과 불과 1km 거리에 거주하는 송정동 고교생들은 비행 훈련이 없을 때는 코티솔 분비증가량(AUCi)이 124.54이었으나 훈련기간에는 검증통계값 범위(값)를 벗어나는 162.53까지 증가,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다. 그러나 공항과 약 15km가량 떨어진 방림동 고교생들은 비행 훈련이 없을 때는 106.40, 훈련 기간에는 129.17

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코티솔 호르몬은 과다 분비 시 장기적으로 협업을 높이고 임파구 수를 줄여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리 정도 측정에서도 군 공항 인근 학생들은 훈련기간 우울 수준과 상태 불안이 증가했고 행복 수준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나 공항과 떨어진 지역 학생들은 그러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량은 개인마다 다르고 소음 외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나 이번 조사를 통해 군공항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 일정 정도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민 구정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국회의 군 소음 피해 특별법 제정 활동에 활용하

고 다른 지역 소음피해 소음이나 국방부 등을 상대로 한 소음 저감 대책 요구 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 기준을 농촌(80웨클)이 아닌 도심(85웨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도농복합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것이다. 솔직히 항의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민 구정장은 “사법부가 피해보상을 외면했다면 입법부인 국회가 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다른 군 공항 소음 피해 지자체들과의 연대 수위를 높이는 한편 근본적인 해결책인 군 공항 이전을 정부에 재차 촉구할 방법”이라고 밝혔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영화제가 끝난 뒤

함정임 칼럼



부산국제영화제 프랑스의 밤 파티에 ‘꽃’이라는 이름의 그녀가 등장했다. 그녀는 내가 파티에 체류하던 2013년 티브이 뉴스 화면을 통해 자주 접했던 인물이었다. 당시 그녀는 39세, 올랑드 내각의 중소기업디지털경제부장관이었다. 토론 문화를 정착시킨 프랑스에서는 내각의 장관들까지 방송에 출연해 중간에 소형 테이블을 놓고 바짝 마주앉아 1 : 1 대담을 나누는데, 그녀도 예외는 아니었다. 정견을 발표하거나, 설명하고 답변할 때 그녀의 눈과 표정, 목소리는 예리하고 다부졌다. 그녀가 티브이에 등장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집중해보곤 했다. 그녀의 이름은 플뢰르 펠랭, 한국 출신 프랑스 여성이었다. 생후 6개월 때 프랑스 가정에 입양되어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고 프랑스 정계에서 활동하는 그녀를 현장에서 지켜볼 때마다 기분이 묘했다.

플뢰르 펠랭이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은 이유는 문화부 장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지난해 문화 각국 프랑스의 문화부 장관이 되었고, 배우 소피 마르스, 감독 레오 카락스와 함께 프랑스 영화 홍보에 나섰다. 이날 그녀는 올해 20회를 맞은 부산국제영화제 오픈시네마 현장인 영화의 전당을 찾아 무대에 올랐다. 관객 인사와 함께 프랑스 영화 ‘사랑의 법정’을 직접 소개했는데, 집행위원장 단상에 오르는 그녀는 문화부 장관이 라기보다는 관객의 눈을 사로잡는 스타 여배우의 패션 감각과 무대 매너를 선보였다. 그녀에게 박수를 보내는 관객들은 그녀의 드라마틱한 삶을 아는 이도 있고, 모르는 이도 있었을 것이었다. 상영 영화를 연출한 감독이나 연기한 배우가 아닌, 문화부 장관이 무대에 올라 인사를 하는 경우를 나는 이전에 본 적이 없었다.

영화가 끝나고, 프랑스 문화부가 주관하는 프랑스의 밤 파티가 해운대의 전당 좋은 홀에 준비되어 있었다. 예년과는 달리 나는 달맞이 언덕의 집으로 향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파티장으로 갔다. 그녀를 좀더 지켜보고 싶

은 마음이 작동한 것이었다.

불문학도로 정촌시절부터 한국문화와 프랑스문학을 매개하는 삶을 살면서, 프랑스 문학과 문화의 많은 부분을 부러워했었다. 프랑스 대사관의 문인 및 학자 초청 시스템을 통해 프랑스 작가들을 초청해 문예지와 독자들을 연결하면서 정작 그 과정에 초청한 프랑스 작가로부터 한국에 난무하는 해석 판에 대해 항의 아닌 항의를 받기도 했고, 프랑스에서는 작가와 편집자들에게 창작 및 연구 공간으로 작가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았고, 한국 작가들이 인구 5천만 명이 되지 않는 국가의 독자를 대상으로 발표를 하는 것과 달리 프랑스 작가들은 전 세계 약 십여 명의 프랑코폰(프랑스어사용자)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도 알았고, 무엇보다 서울 종로구 사간동 프랑스문화원에서는 무삭제 원본 영화들을 상영하고 있는 것을, 그곳을 기점으로 한국에서 시네필들이 형성되고 시네아스트들이 배출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프랑스는 지금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선망의 나라였다.

프랑스의 밤 파티에서 프랑스문화부장관 플뢰르 펠랭은 한국의 홍상수 감독에게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레지옹도뇌르 훈장을 전달했다. 그 자리에는 프랑스 여성 배우 소피 마르스가 함께 했다. 레지옹도뇌르(L'égion d'honneur)란 프랑스에서 최고 영예 훈장으로 군사적인 공적이나 문화적인 공적이 큰 국내외 인사에게 대통령이 수여하게 되어 있다. 홍상수 감독 이전에 임권택, 이창동 감독도 프랑스 정부로부터 문화예술을 널리 알린 공로로 이 상을 받았다.

파티 중간에 빠져나와 해운대 해변을 걸었다. 상들리에 아래 삼패인 잔 부딪히는 소리와 돌썩 셋씩 모여 답소하느라 속삭이는 프랑스어소리, 장관과 감독과 배우들의 무대 뒤편, 창밖으로 보이는 광안대교의 환한 실루엣과 그 아래 검은 바다가 취한 배처럼 흔들렸다. 급히 마신 와인이 체했던 것인지, 숨쉬기가 곤란했다. 아니, 정촌시절부터 마음으로 몸으로 찾아다니고 기렸던 세계가 기울고 허허로워진 것을 목도한 것처럼 피로감이 엄습한 것일까.

달라진 것과 여전한 것은 무엇인가. 지나간 세계와 마찬가지로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세계 역시, 한바탕 현란한 쇼, 팽당 헛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눈속임처럼 꺾박이는 광안대교의 휘황한 조명들을 뒤로 한 채 달맞이 언덕으로 발길을 돌렸다.

〈소설가·동시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롯데쇼핑 월드컵점

불법 재임대 의혹

광주시, 전면 감사 돌입

광주시가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점의 불법 재임대와 관련해 전면적인 감사에 나섰다. 이번 감사는 운영현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1일 “우선 최초 계약이 추진된 2004년 이후 공유재산 입찰과 롯데쇼핑과의 협약서 등 관련부서에서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롯데쇼핑 측이 불법 재임대(전대·轉貸)를 통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했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점 등이 감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롯데쇼핑(주) 측의 불법 임대를 알고도 묵인·방임 등 제대로 행정조치를 했는 지 여부가 조사 대상이다.

협약서 상 롯데쇼핑(주)이 사용할 수 있는 전대매장 면적은 9289㎡이지만 실제로는 1만3287㎡(2014년 기준)에 달했다.

입찰 당시에는 재임대 금지 자까지 쓴 것으로 나타났다. 각서에는 “시의 승인없이 대부분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양도하지 않겠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을 즉시 인도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유재산법에는 대부분은 건물이나 토지 등은 원칙적으로 남에게 재임대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이 건물은 가부한 것이어서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2년에는 세무 관련 부서에서 전대 규모와 면적 등을 파악한 만큼 그 이후에 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가 감사의 초점이 될 전망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순천시 지적장애인 복지대회

21일 순천시 팔마체육관에서 열린 ‘제30회 전국지적발달장애인 복지대회’에서 기수단이 내외빈들의 환호 속에 입장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 후보자 임명 여부 오늘 결정

시도의회 부적격 의견

일부선 현실론도 제기

허성관 광주·전남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광주·전남연구원은 21일 자료를 내고 “22일 오전 9시 광주공무원교육원에서 이사회 간담회를 연 뒤 오전 10시 원장 선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연구원 측은 기자회견에 이어 이사회와 소속 연구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김수삼 이사장은 선임 원장 선임 시에는 임명 사실을, 그리고 불선임 시에는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허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날 22일 광주시·전남도의회 합동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논란, 부동산 투기 의혹, 세금 탈루 의혹 등이 제기됐고, 시·도의회 인사청문위원들이 사실상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후 추가 소명을 통해 허 후보자에 대한 일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세금 탈루 의혹 등도 해명된 바 있다.

광주·전남연구원장 임명권을 가진 김 이사장은 청문회 후 여론 수렴 차원에서 지난 5일 이사회 간담회를 갖는 등 지역 내 여론 주도층의 의견을 청취했다.

허 후보자의 연구원장 선임과 관련 지역 내에서는 “현안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통합연구원을 이끌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반대 여론과 “3차 공모에 나설 경우 연구원 출범이 지체되는 것은 물론 만족할만한 수준의 인사가 참여할 지 미지수”라는 현실론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라식 vs 라섹

각막결편을 만들고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통증이 적고 시력회복이 빠르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각막 상피를 벗긴 후 레이저로 시력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라식에 비해 통증이 다소 있고 시력회복 속도가 느리지만 충격과 안구건조증에 강한 수술 방법입니다

◎ 사람의 눈은 손가락의 지문처럼 모두 같지 않습니다. 때문에 각각의 눈에 맞는 다양한 수술이 가능한 시력교정전문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역 : 스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